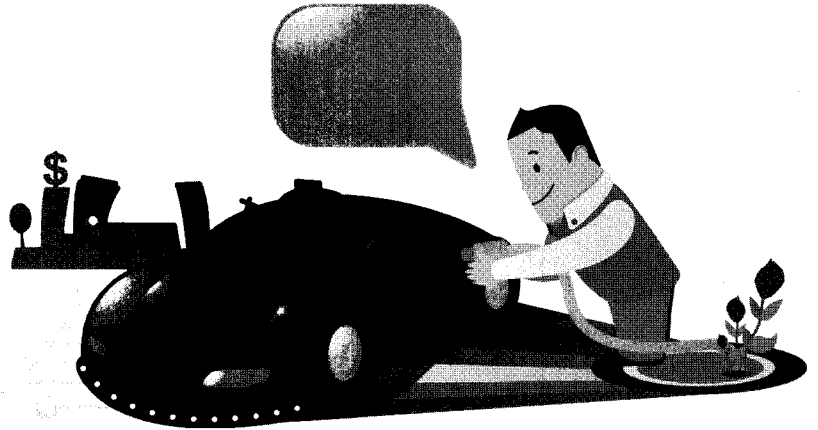


# 자동차 오래타고 싶으면...목표부터 정하라

김원하 | 교통정보신문 발행인



BMW나 벤츠 같은 대형 고급차들이 즐비한 주차장에 10년도 훨씬 넘은 해 목은 국산 소형차를 타고 와서 기죽지 않고 차를 댈 수 있어야 진정 자동차문화시대가 정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대형 고급 자동차나 대형 아파트가 부를 상징하던 시대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는데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70년 대 후반에 일기 시작한 가스라이터가 붐을 이룰 때 '던힐' 같은 고급 라이터를 갖고 있다는 것은 자랑거리였다. 요즘 그런 라이터가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바보취급을 당하기 십상일 것이다. 라이터는 불만 켜지면 되기 때문에 돈 많은 부자들도 일회용 라이터로 만족한다.

자동차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말썽부리지 않고 잘 달려주면 만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일까, 도로에 차령이 10년도 훨씬 넘은 차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자동차메이커들이 차를 잘 만든 데도 기인하

겠지만 대부분은 운전자들이 자동차 관리를 잘해서 차의 수명이 연장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왜냐하면 같은 연식의 같은 모델들이 이미 폐차장에서 생을 마감했는데도 어떤 차들은 새 차 못지 않은 성능과 탄탄함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마치 건강검진을 자주 받아 큰 병이 생기기 전에 작은 병을 일찍 고쳐 장수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 ◆ 중고차가 경제적이다

앞으로 10년이 경과한 소형차의 보험료가 10%가량 낮아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중고차 활용 활성화 차원에서 10년이 지난 1,500cc 미만의 소형차 보험료를 10% 정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자차보험의 경우 차 가격에 일정비율로 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중고차는 새 차에 비해 그 만큼 보험료가 싸다. 중고차 업계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0월까지 국내 중고차 거래(중여, 상속, 촉탁 제외)는 총 2,156,485 대로 2009년 같은 기간 1,601,074대 보다 35% 증가하면서, 중고차 시장 200만대 시대를 열었다. 연간 중고차 거래 대수는 1996년 100만대를 돌파한 이후 2005년 1,693,891대, 2007년 1,813,041대, 2009년 1,964,754대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신차 판매 호조에 덩달아 중고차 수요가 늘어난 데는 중고차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중고차도 믿고 살 수 있고, 길이 잘 들여진 중고차는 새 차 못지않아 중고차를 찾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 주변에 매년 중고차만 구입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중고차가 훨씬 경제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중고차에 대한 인식이 중고차 거래가 일반화된 선진국 식으로 바뀌고 매매업자의 각종 서비스가 개선되면서 시장도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 ◆ 자동차, 오래 타려면...

자동차를 오래 타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마음먹기에 달렸다. 국산차 수명은 대략 약 50만km를 달릴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운전자들은 평균 8년 만에 약 14만km를 주행하고 나서 실증이 난다거나 고장이 나서 폐차한다. 미국, 일본의 경우에는 15년 이상 사용하며, 주행거리도 28만~40만km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폐차주기가 절반 밖에 되지 않으며 평균 주행거리도 짧다. 우리나라 자동차 폐차주기를 1년만 연장하더라도 18조원의 절약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 ▶ 보증수리 기간을 보고 차량 선택

자동차를 구입할 때부터 오래 탈수 있는 차를 선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보증수리 기간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비슷한 가격과 같은 품질의 차라면 보증수리 기간이 긴 제품이 수리비용도 적게 들어 경제적이고 또 오래 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 ▶ 자동차 구입 후 스스로 차령을 정하라

필자의 차는 1994년에 구입한 차다. 올해로 차령이 17년 되었지만 운행하는데 아무문제도 없다. 이탈리아의 경차(600cc미만)를 취재하러 갔을 때의 인상이 깊어 새 차를 구입하면 20년 이상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를 실천중이다. 이탈리아에는 20년이 넘은 많은 경차들이 도로를 질주한다. 운전자가 차를 구입하고 나서 최소한 몇 년 이상은 타야겠다고 생각하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만큼 관리에 신경도 쓰고 운전도 조심하게 되어 일석이조(一石二鳥)가 될 수 있다. 결혼식을 끝낸 신혼부부가 인생의 목표를 정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이치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자동차공업협회가 집계한 2010년 6월 말 자료에 등록된 승용차 10,448,815대 가운데 20%에 달하는 2,035,743대가 10년 이상 된 차량이라고 한다. 이는 2002년 7월 등록 승용차 9,424,000여대 가운데 차령 10년 이상이 1,026,000여대로 10.8%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2년 사이 '고령' 차량이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오래된 자동차를 탄다고 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창피해할 필요는 전혀 없다. 차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뜻인 만큼 오히려 존경 받아야 하는 것 아닐까. 일단 자동차를 오래 타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타겠다”고 마음부터 다잡는 것이 필요하다. 10년 이상 차를 타겠다고 마음을 바꾸면 운전습관도 바뀌고 차를 관리하는 태도도 달라지며, 또 자연스럽게 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다.

### ▶ 차 구입 후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라

자동차를 구입하면 해당 차의 설명서가 비치되어있다. 차를 구입 후 이 설명서를 제대로 읽지 않는다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내차가 갖고 있는 성능을 제대로 활용하고 각종 스위치의 작동요령을 알아두기 위해서는 판매사원의 설명으로는 부족하다. 택시운전이 10년이 넘었다는 택시를 타고 가면서 운전자와 이런저런 차 이야기를 해봤는데 아주 기초적인 자동차 지식이 없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다. 운전을 상당히 오래 한 사람들은 “내가 운전을 잘 한다”는 자부심으로 취급설명서나 판매사원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이 차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고, 관리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는 취급설명서를 차에 비치하고 틈나는 대로 읽어두면 아무래도 운전도 잘되고 관리도 잘된다. 옛말에 알아야 면장도 한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 ▶ 자동차 오래타려면 과속·급출발은 금물

자동차를 구입해서 10년 넘게 타는 운전자들은 모두 공통된 운전습관을 가지고 있다. 이를테면 ‘정속주행’을 한다거나 트렁크에 불필요한 물건은 싣고 다니지 않는다. 자동차를 고장 없이 오래 타려면, 급가속과 급출발을 피해야한다. 급가속 및 출발이 습관화되면 차의 내구성이 떨어지고 자동차 연비도 정속주행 할 때보다 10~20% 연료가 더 들어간다. 난폭운전을 하게 되면 연료소모도 많이 되고, 차의 수명도 단축된다. 자동차의 중량은 연료소비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동차 수명에도 영향을 준다. 짐이 많으면 타이어 및 관련 부품이 쉽게 마모되어 자동차 수명을 단축시킨다. 또한, 짐 10kg 정도를 싣고 50km를 주행할 경우, 80cc의 연료가 더 든다. 예비타이어와 고장대비용 부속품을 제외하고 가급적 불필요한 물건은 싣고 다니지 않는 것

이 좋다. 골프채 같은 것을 싣고 다니면 도둑의 염려도 생기고 기름도 그 만큼 더 든다.

### ▶ 구하기 어려운 소모부품 챙겨두기

자동차 메이커들은 한 차종을 길게 팔지 않는다. 라이프싸일클이 길어야 2~3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차를 오래 타려면 소모품을 미리 챙겨두면 시간이 흐른 후에 정비하기가 훨씬 쉽고 가격도 저렴해질 수 있다.

### ▶ 아무 곳이나 주차하지 말아야

인도와 보도에 반쯤 걸쳐놓은 식으로 비스듬히 주차하면 현가장치의 고무부품이 더 빨리 변형되고, 고속도로에서 똑바로 주행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긴다. 비포장 주차장은 습기가 올라와 차체의 작은 틈을 통해 금속 안 부분이 녹슬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게 좋다. 자동차 부식이 자동차수명을 단축시킨다는 것은 상식이다. 산성비나 눈이 묻은 채로 그냥 방치하는 것이 자동차의 부식원인이 된다. 특히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해 뿌린 염화칼슘과 바닷가 근처에 자동차 주차 시 염분이 포함된 바람으로 인하여 자동차 부식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바닷가 근처의 자동차들이 부식이 많이 되어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염화칼슘은 자동차 부식을 빨리시키므로 비와 눈 온 뒤에는 자동차를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 특히 여름철에는 햇빛 강한 곳 보다 응달에 주차하고 나무진액이 잘 떨어지는 소나무와 전나무 밑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 ▶ 자동차 피부 관리에 신경 써라

요즘 차들은 엔진이 망가져서 못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차체 관리가 부실하여 녹이 쓸어 폐차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차도 사람의 피부에 해당하는 걸면을 잘 관리해야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접촉사

고 등으로 흡집이 생기거나 칠한 부분이 벗겨진 것을 방치하면 무서운 속도로 녹이 번지므로 부식 방지제를 뿌리고 페인트를 칠해야 오래 간다. 자동차 외장 관리는 단순히 보기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에 대한 애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아주 가끔은 전문 광택업소에 가서 광택을 내는 것도 좋다. 광택을 내면 웬만한 잔 상처는 거의 잡아주고 묵은 때가 지 깔끔하게 없애주기 때문에 새 차 기분을 낼 수 있다. 광택은 겨울철과 황사계절이 지난 다음하는 것이 좋다. 차에 새똥이 묻었을 때는 지체 없이 닦아준다.

### ▶ 차 관리만 잘해도 자동차 수명 연장돼

자동차 수명은 운전자의 관리능력에 비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잔 고장 없이 자동차를 오래 타기 위해선 차량상태 점검, 소모품 교환, 사전정비, 차계부 작성 등 자동차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엔진오일, 타이어, 브레이크액, 앞 항균필터, 예열플러그, 배터리 등 소모품별 교환주기에 맞춰 교환하는 것이 최 상책이다. 엔진오일 교환은 5천~7천 km, 브레이크액 교환은 2~3만km, 연료필터교환은 엔진오일 교환 시 교환해도 자동차 수명 연장에 많은 도움이 된다. 또한, 소모품 교환일, 기름주입 날짜 등을 일목요연하게 차계부에 기록해 관리하는 것이 좋다. 차계부를 관리하여 보관하면 중고차 시장에 팔 때에도 상대방에게 믿음을 주기 때문에 차계부 없는 차보다 상대적으로 잘 팔린다. 선진국에서는 차계부가 없는 자동차는 중고차 매매 시 거래를 기피하고, 일본의 경우에는 차계부가 없는 중고차는 매매 시 공식적으로 10%를 감액하고 있다. 한편, 오래된 차일수록 오일이 빨리 변질된다. 자주 체크해 보고 제 때 갈아주는 게 좋다. 오토차일 경우에는 오토 미션 오일도 주기적으로 갈아주어야 한다. 운행 중 갑작스런 고장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타이밍벨트의 손상인데 전문정비업체서 체크해 보고 교환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 ▶ 자동차 방치하면 쉬 늙는다

기름 값이 부담되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차를 세워두는 운전자가 있다. 하지만 차를 너무 방치하면 성능이 떨어진다. 1주일에 최소한 1번 정도, 5~10분씩 시동을 걸어줘 성능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좋다. 특히 중고차일수록 자주 시동을 걸어줘야 하고 겨울철에는 장시간 시동을 걸지 않으면 배터리가 방전되어 시동이 안 걸릴 경우도 발생한다.

### ▶ 정기 점검은 필수 항목이다

1년에 한번 건강검진을 받듯이 차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1년에 한번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잔병을 방치하면 합병증이 생기는 것처럼 잔 고장을 방치하면 큰 고장을 부르기 때문이다. 그래야 자동차가 당신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으니까. **K**

